

국내 주식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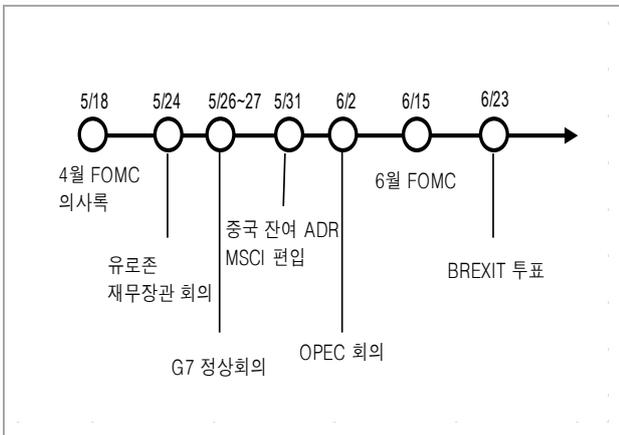
KOSPI 하방경직성에 대한 소고(小考)



KOSPI 직전 저점 지지력 강화

- KOSPI가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지루한 장세는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경제지표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4월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미국의 소비관련 지표 호조세는 지역 연준위원들의 매과적 발언을 등에 업고 6월 금리인상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
- 여기에 더해 5월말 예정된 중국 ADR 잔여분(50%)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6월 하순까지 그리스의 대규모 채권 만기도래와 구제금융 협의를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MSCI 연례시장 분류에서의 중국 A주 신흥지수 편입 논의,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와 같은 대외적인 이벤트 등이 KOSPI의 기간조정을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그러나 KOSPI의 추세는 아직까지 견조한 상황이다. 비록 중기 추세선인 60일선 지지에는 실패했지만 직전 저점(1,962.74p)에서의 지지력이 강화되면서 하방경직성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6월까지 다양한 대외 이벤트 대기 중



주: 표시된 일자는 모두 현지시간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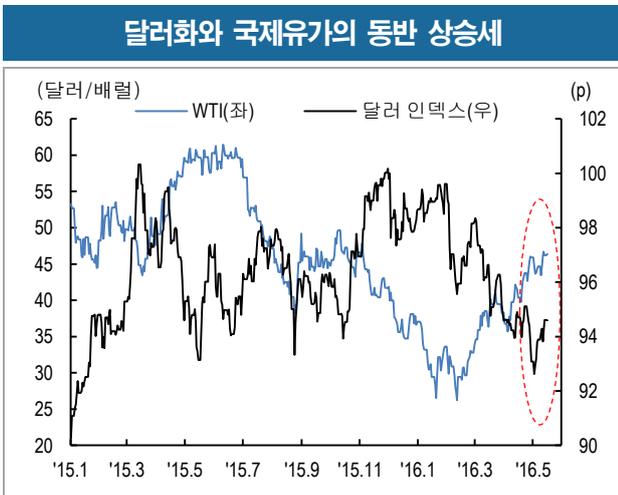
KOSPI 직전 저점에서의 지지력 강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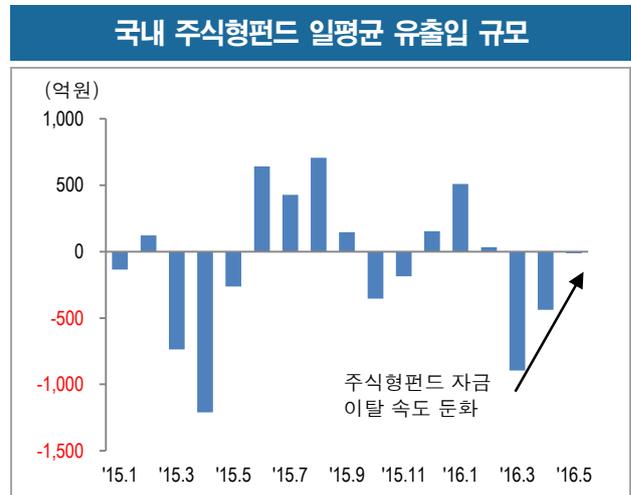
자료: QV,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실적, Risk-On 심리, 그리고 기관 수급

-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 기대를 높이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지난 16일자 WM Weekly 국내 주식 투자전략 ‘외국인 입장에서 KOSPI의 매력도는?’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국내 증시의 이익모멘텀(2016년 EPS 성장률, 12개월 Fwd EPS변화율)이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인 투자매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게다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국제유가가 동반상승세를 나타내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고, 그동안 비관적인 전망을 이어왔던 골드만삭스가 올해 하반기 국제유가 전망을 기존 배럴당 45달러에서 5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에너지 업체들의 파산보호 신청이 확대되며 국제유가의 추가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5일과 16일 브레이크번에너지 파트너스, 샌드리지에너지를 비롯해 지난주 린에너지와 펜버지니아 등 올해 들어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숫자가 29개까지 확대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원유 공급감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
- 국내 수급 측면에서도 3월과 4월 KOSPI 반등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유출되었던 국내 주식형펀드 자금이탈 규모가 5월 들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일평균 주식형펀드 유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3월 895억원에 달했던 자금유출 규모가 4월에는 439억원까지 줄어들었고, 5월 들어서는 약 11.3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결국 국제유가 상승으로 대표되는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과 국내 증시 이익모멘텀 및 기관 수급 개선 가능성 등이 KOSPI의 하방경직성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어 추가하락보다는 저점 형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점이다.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자료: 금융투자협회,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